

벌써 등장한 설 선물세트…대형마트, 사전예약 개시

이마트·롯데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최대 50% 할인
고물가 기조 장기화…‘얼리버드’ 고객 겨냥 유치 경쟁

대형마트들이 고물가 시대에 명절 선물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사전예약 기간을 늘리고 가성비 중심 실속형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속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더 오랜 기간 혜택 등을 누려 합리적인 명절 준비에 힘을 보태기 위한 업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30일 농협경제지주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35일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목우촌, 농협홍삼, 농

협양곡 등 농협 특별 선물세트와 ‘농협다운’ 과일혼합, 한우 명품 등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스테디셀러 403종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행사카드 및 간편결제로 결제할 경우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750만원 상당의 농촌 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

앞서 이마트도 지난 26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내년 2월 6일까지 총 43일간 진행된다.

2026년 설 사전예약 기간은 올해 설 사

전예약 기간 대비 9일, 추석 사전예약 기간 대비 3일 더 길게 설정했다.

이마트의 프로모션 기간 연장은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얼리버드’ 고객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마트 선물세트 매출 중 2022년 설 사전예약 비중은 44.8% 수준이었으나, 올해 설에는 53.7%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72.6%까지 치솟으며, ‘얼리버드’가 선물세트의 트렌드인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눈에 띠는 점은 고물가로 인해 명절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사전예약 기간 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할 경우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7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세부적으로 ‘1000만~3000만원 미만’,

‘3000만~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등 3개 구간을 신설했으며, 각 구간마다 최대 150만원, 450만원, 750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사전예약 기간 동안에는 △행사카드 결제 또는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선물세트별 최대 50% 할인 △행사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10만원 미만 실속형 수산 선물 신규세트, 만감류 세트 대폭 강화 등도 준비됐다.

롯데마트·슈퍼도 지난 26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받는다.

이번 사전예약에서 총 800여 종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 상품부터 프리미엄 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을 마련하고,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선물세트도 함께 준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한정판 패딩부츠 신어보세요’ (광주신세계 대표 이동훈)가 영국 웨더웨어 브랜드 ‘한터(HUNTER)’와 인기 캐릭터 ‘잔랑루피’가 협업한 한정판 ‘한터X잔랑루피 인앤아웃 푸퍼 레이스업 부츠’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니트코프 디테일과 크로스 로프 레이스업 디자인에 귀여운 루피 캐릭터 패턴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 노사민정, 통합 인사회로 새해 문 연다

광주경총 등 10개 기관 합동

1월2일 오전 6시30분 DJ센터
희망 떡국나눔·덕담 등 화합



광주·전남지역 노사민정이 통합 신년인사회로 병오년 새해의 문을 연다. 광주경영지총협회(회장 양진석)는 내년 1월 2일 오전 6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 및 기관과 ‘2026년 노사민정 합동 신년인사회·희망 떡국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주요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와 연대를 다짐하는 자리로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신년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구정장, 공공·출연기관장, 경제·언론·학계 인사와 회원사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6시 30분부터 30분간 조

찬 형식의 ‘희망 떡국나눔’으로 시작된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10개 경제단체 및 기관의 신년 인사와 세례가 진행되며 7시 10분부터는 떡 케이크 절단과 주요 내빈 신년사, 덕담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 신년인사회는 협회·단체·기관이 개별적으로 열어오던 신년행사를 하나로 통합, 예산 절감과 지역 경제 단체가 뜻을 모아 노사민정 합동 신년인사회를 마련했다”며 “역동적인 말의 기운처럼 위기를 넘어 학회과 재도약을 다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직업계고 학생들 “광주 취업 원하지만 떠나야 하나”

광주인자위, 직업계고 취업선호도 조사·연구 결과

졸업 후 진로 1순위 ‘취업’…지역 근무 희망 ‘56%’

광주지역 직업계고 학생 절반 가량이 졸업 후 곧장 취업을 희망하지만 동시에 10명 중 4명은 타지역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취업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인재 유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5년 광주지역 직업계고 취업선호도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업계고 재학생의 졸업 후 진로 계획 1순위는 ‘취업’으로 47.7%를 차지했다. ‘대학 진학’은 31.3%로 뒤를 이었고 ‘선후업 후 진학’(9.4%), ‘기타’(11.6%) 순으로 조사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가운데 56.1%는 희망 근무 지역으로 ‘광주’를 선택해 지역 정착 의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나머지 43.9%는 타지역 취업을 고려하고 있어 직업계고 인재의 지역 이탈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지역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다

른 지역이 일자리 더 많고 미래 전망이 좋아 보여서’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하는 일자리가 광주에는 없는 것 같다’는 응답이 18.4%를 차지했다.

교사 설문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확인됐다. 직업계고 교사들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고졸 채용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5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역 내 기업 취업 시 혜택 제공(22.0%)’, ‘취업 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 강화(19.0%)’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인자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선호와 지역 전략 산업을 연계한 맞춤형 훈련 확대, 임금·복지·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산, 취업·훈련·기업 정보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후 광주인자위 사무처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의지 자체는 높지만 지역 산업과 일자리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재 유출을 막기 어렵다”며 “교육과 산업, 고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CHO JUNG SEOK SHOW

2025-26
전국투어
콘서트

2026.1.3 SAT 18:00 광주예술의전당
2026.1.4 SUN 15:00 대극장

주최·제작 JAM 콘서트 주관 공연마루 예매처 NOL ticket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